

# 退溪哲學의 체계적 구성\*\*

—『聖學十圖』를 기초로—

高 橋 進\*

● 目 次 ●

I. 序 論	IV. 世界存在와 人間存在
II. 儒學의 목표와 방법	V. 心과 性
III. 聖學十圖의 구성과 철학적 관계	VI. 結 論

## I. 序 論

퇴계의 철학적 저작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 속에서는 그의 철학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완전히 명료화된 적이 없다. 그는 思辨과 실천에 대한 많은 저작을 남겼지만, 이 점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기술된 적이 없다. 원래 儒學은 修己治人の 일상적 실천에 대한 연구였지, 논리적 사변에 기초한 체계적 철학은 아니었다. 宋代 新儒學의 發興과 함께 朱子는 선행한 철학적 사변들과 일상적 실천들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 이를 한층 심화시켰다. 그의 저작들 덕분에 儒學은 그 내용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획득하고 성리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宇宙論과 世界觀과 存在論은 新儒學속에서 서양 것 못지 않은 독창적

\* 目白大 학장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0호(1983) 게재논문

철학체계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것을 낳는데 기여하였다. 그것들은 易經의 논리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깊은 탐구의 결과는 세계관과 존재론의 종합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근본 원리를 세웠다. 그리하여 일상적 실천의 이론과 내용은 반성적으로 명료화 되었다.

퇴계가 전통유학과 신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를 받아들여 그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을 竝立한 위대한 철학자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철학은 결코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대가, 그가 그의 독창적인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사용한 틀과 체계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철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현대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첫단계로 그의 『聖學十圖』라는 책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선조임금에게 바쳐진 책으로서, 그가 68세 되던 1568년에 쓰여진 것이다. 그 때 퇴계의 관직은 經筵官이었는데, 이것은 임금에게 유학을 강의하고 역사 및 과거와 현재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주는 책임을 맡은 직책이었다. 그는 건강 때문에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서 물러나고자 하였으나, 그의 그러한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1568년 8월에 저 유명한 『戊辰六條疏』를 宣祖임금께 올렸다. 이 기다란 논문은 帝王學에 대한 여섯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퇴계의 기본적인 정치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연보에 따르면 그는 1568년 11월에 임금에게 여덟개의 강의를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자신이 아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해 12월 『聖學十圖』를 올렸다. 『戊辰六條疏』에서는 임금이 따라야 할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논한 데 반하여 『聖學十圖』에서는 임금이 실천하여야 할 유학의 요점과 방법론을 그림 속에서 표현하였다. 이 두 저작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聖學十圖』는 퇴계의 혁신적 사상의 전국면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것은 朱子의 저작과 『大學』을 포함하여 주로 宋代 유학과 관련된 열 개의 자료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그러면 왜 풍부한 다른 자료들 가운데서 특히 이 열 개만이 선택된 것인가? 또한 이 열 개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러한 물음에 대답하고자 하는 『聖學十圖』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퇴계사상의 기본체계가 발견될 수 있다.

그는 이 열 개의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진 그의 의견은 그가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철학적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철학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 저작이 당시의 임금에게 바쳐진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일반대중이나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강의하고 있었다. 퇴계는 일개 신하로서 그 자신의 의견을 임금이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는 留保를 두었을 것이다. 그가 철저히 과거의 성인의 일에만 입각하고, 그의 의견은 암암리에 보충하기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나는 『聖學十圖』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바, 이는 열 개의 그림과 그가 보충한 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퇴계철학의 내적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II. 儒學의 목표와 방법

『聖學十圖』는 帝王學의 책이며, 그 당시 임금에게 바쳐진 책이다. 퇴계는 제5도에 대한 보충설명 가운데서 帝王의 學은 그 準則과 금지의 조목은 일반학문과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인륜에 근거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행함에 힘써 心法의 절실하고 요긴한 곳을 얻으려 하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라는 의견을 말한다. 그러므로 『聖學十圖』가 비록 임금을 위

하여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일반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학의 목표는 修己治人이며 『大學』은 이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大學』의 요점은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에 있다. 修身은 正心과 誠意를 뜻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格物하는 가운데 致知해야 하는 것이다.

『聖學十圖』의 서문에서 퇴계도 이러한 점들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는 유학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의견은 인간의 마음(心)에 관한 것이다. 心은 身體를 통제한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心에서 나온다. 그래서 心은 인간의 모든 말이나 행위에 책임이 있다. 欲과 惡의 원천은 心에 있으므로 학문의 기본은 어떻게 心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원래 人心은 생각하는 주된 기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은 존재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고 성인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서 퇴계는 『論語』의 다음과 같은 귀절을 인용하고 있다. 『배우기만 하고(學) 생각하지(思) 아니하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 그는 이 귀절이 學에 따르는 실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物』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心에서 구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것은 『物』의 세부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인도한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物』이 心身에 익지 않아 위태하고 불안하다. 그러므로 思와 學은 서로 발명하고 서로 이익이 되며, 思와 學, 學과 실천은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心의 기능에 속한다. 聖學 속에서 心의 지위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퇴계는 心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居敬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居敬은 思와 學을 겸하고 動과 靜을 貫하며 내외를 합하고 顯과 微를 一로 하는 방법이다. 居

敬은 자신의 마음을 참고 통제하며 조용히 一點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心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사변과 느낌과 의지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 敬에 의해 心을 통제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유기체적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居敬은 心을 心 자체에 의해 규제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치는 배우고 묻고 생각하는 사이에 궁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보다 엄격하게 戒懼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엄격히 자신을 戒懼할수록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居敬의 내용이며 聖學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본적 방법이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일상생활에서 敬畏를 떠나지 않으면 中和位育의 功을 이룰 수 있고 덕행이 彝倫을 벗어나지 않으면 天人合一의 妙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Ⅲ. 『聖學十圖』의 구성과 철학적 관계

열 개의 圖는 어떻게 정리되고 구성되었으며, 그것들 사이의 철학적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각각의 圖의 말미에 붙어있는 퇴계의 보충설명을 기초로 하여 논하고자 한다.

1) 퇴계는 그가 서문에서 말한 바를 재차 강조하여 『이 열 개의 圖도 모두 敬으로써 그 主를 삼았습니다.』고 말하고 『敬이란 것은 또 위에서부터 끝까지 徹하는 것이니 공부를 하여 그 功效를 거두어 드러냄에 있어 다 마땅히 중사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장에서 밝혀지겠지만 『主로서의 敬』은 各圖에서 직접 간접으로 설명된다.

2) 퇴계는 『小學』과 『大學』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제3圖의 보충설명)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4圖의 보충설명에서는 『나머지 여덟 개의 圖

는 이 두 圖를 통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3) 제4圖의 보충설명에서는 「제1圖와 제2圖는 실마리를 구하여 확충하고 天을 體로 하여 도리를 다하는 극치의 곳으로서 『小學』 『大學』의 표준 및 본원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4) 제5圖에서 제10圖까지는 「善을 밝히고 몸을 성실히 하고 德을 높이고 일함을 넓히는 데(廣業) 힘쓰는 것으로써 『小學』 『大學』의 근거로 하는 처지(田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제4圖 보충설명)

5) 제1圖에서 제5圖까지는 「天道에 근본하여 인륜을 밝히고 德業에 힘쓰는 공이 있는 것입니다.」 (제5圖 보충설명)

6) 제6圖에서 제10圖까지는 「心性에 근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제10圖 보충설명)

각 圖에 대하여 언급한 退溪의 위와 같은 보충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열 개의 圖가 어떻게 구성되고 정리되었으며, 어떠한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고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小學』과 『大學』은 『聖學十圖』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책은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지를, 그리고 한 인간이 개인으로서 사회나 국가 또는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 두 책은 聖學의 縮約版이며,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 유학의 근본적 가르침이다. 본질적으로는 이 두 책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 책의 본체를 논리적, 실천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퇴계는 신유학으로부터 다른 소재들을 택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철학체계로 형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퇴계는 『大學』과 『小學』사이의 관계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여덟 개의 圖는 이 두 圖를 통하고 기초로 하여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1圖와 제2圖는 한마디로 세계관과 존재론을 밝히고 있다. 그 둘은

세계와 존재의 궁극적 원리를 밝히고, 『大學』과 『小學』에 근원적 권위를 형성해 준다. 제5圖에서 제10圖까지는 이 두 책의 본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퇴계는 거기에서 그의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또한 존재의 원리와 인륜의 원리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그 양자 사이의 일치성을 명백히하고 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의 틀과 당위성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제1圖에서 제5圖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졌다. 다른 한편 善의 실천자로서의 인간이 문제로 대두되며, 그 문제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心이 문제가 된다. 제5圖에서 제10圖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心과 情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우리가 聖學이 가르치는 바 이상적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心을 수양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내가 앞서 말했듯이 열 개의 圖에 대한 퇴계의 사상은 敬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면 敬의 개념은 어떻게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아래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이다.

#### IV. 世界存在와 人間存在

퇴계에 따를 것 같으면, 제1圖와 제2圖는 聖學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확충하며, 세계 혹은 존재일반의 원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다.

제1圖는 근본원리로서의 조화 즉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다. 朱子도 이것을 가리켜 『道理의 大頭腦處요 百世 道術의 淵源』이라고 하였다. 『太極圖說』속에서 조화의 원리는 無極과 太極으로 설명된다. 太極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物들이 形化되기 이전의 渾沌, 個別存在 全體, 存在一般 또는 이론적 一氣로 이해하기로 하자. 한편 無極은 존재의 근원 혹은 이론적 一

氣가 소유한 모든 존재물의 기능에 대한 근본이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無極과 太極은 당연히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이론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太極이 物과 더욱 가까운 반면 無極은 순전히 형이상학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無極과 太極은 세계와 존재의 순수한 원리이고 個物들이 그로부터 생성되는 바 활력의 근원이며, 그에 의해 個物들이 변하고 움직이는 바 하나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朱子의 理氣二元論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無極과 太極은 엄격히 형이상학적 현상이다. 그러나 『太極圖說』 속에서는 無極과 太極이란 말이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순수한 형이상학적 원리의 성격이요 다른 하나는 이론적 氣의 성격이다. 퇴계가 『太極圖說』을 택한 것은 단지 周濂溪가 이것을 圖解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太極圖說』에 있어 動의 원천으로서의 理의 성격과 퇴계의 性情論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의미와 성격을 가진 太極이 一動一靜할 때 陰陽二氣와 五行이 생겨 나온다. 그리고 陰陽五行의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나온다. 陰陽五行 萬物은 太極의 動靜으로부터 나오고 형성되어 太極의 근원은 無極이다. 그래서 만물의 존재와 기능의 근본원리로서의 無極과 太極은 만물 속에 내재해 있다.

인간은 陰陽五行의 상호작용이 구현한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만들어낸 이러한 상호작용의 원천으로서의 理 혹은 無極과 太極을 가장 많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理가 元來의 인간본성이다. 그러므로 성현들은 세계 혹은 존재의 理—無極과 太極—을 인간이 따라야 할 理法으로 삼았다. 朱子에 따르면 마음을 억제하고 욕망을 줄이는 것이 이 理를 깨달아 얻는 요령이다. 無欲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無極과 太極은 음양오행의 상호작용과 변화가 있기 전에는 活性이 없으므로, 만약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여 완전한 靜의 상태에 이르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그는 인간이 따라야 할 理法, 즉 세계 혹은 존재의 理를 얻을 수 있



다. 위에 언급한 제1圖의 내용은 세계관이나 존재론 혹은 인간존재의 理法의 기초이다. 제1圖는 생성과 존재의 원리로서 無極과 太極을 설정하고 있으며, 無極과 太極의 운동과 변화가 음양오행과 만물을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이론은 시간상의 진전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원리로 따라야 하는 순수한 이론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個物과 존재의 원리로서의 혹은 생성과 변화의 근원으로서의 無極 및 太極의 관계는 명백히 설명될 필요가 있고, 퇴계는 이것을 제2圖에서 설명하였다.

제1도는 陰과 陽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천지의 생성과 변화를 보여주었다. 陽의 기능은 乾이라 불리고 이것은 天을 상징한다. 陰의 기능은 坤이라 불리고 이것은 地를 상징한다. 만물은 天地之間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乾坤은 부모와 類推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만물은 乾과 坤에 의해, 다시 말해 父와 母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의 창조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오직 하나의 창조원리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형제지만 각 개인은 인간인 부모를 자신의 창조자로 가지므로 혈연관계를 가진 형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열이 형성된다.

인간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天子이며 최고의 통치자이다. 그래서 君臣의 차이와 老少의 차이가 생겨난다.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것은 노인이나 병자나 외로운 사람들이 형제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은 창조자로서 자기 부모를 가지기 때문에 다르다.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만인이 형제이고 그들의 부모는 乾坤이라는 본래적 창조자 즉 理로 귀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各人이 자신의 부모를 창조자로 가지고,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혈연관계를 가진 형제들이 생기므로 서열이 생길 수 있다. 이 이론은 무차별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도 엄격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것도 아니다. 평등성과 개체성이 각 개인 속에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이다.

朱子와 楊龜山은 이 이론을 理一分殊라고 했거니와, 이것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창조원리만이 있지만, 個物들이 갈라져 나온다는 것이다. 퇴계는 만약 사람이 이 원리를 완전히 깨달으면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며, 聖學의 목표인 仁의 실천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무차별적 평등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前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계에 따르면 제1圖와 제2圖는 聖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이며, 이것을 구하고 확충함에 의해 세계나 존재전체의 생성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생성과 변화가 근거하는 원리 자체를 밝힐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圖는, 세계나 존재의 연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음양오행의 변화와 交替를 통하여 만물 생성의 이론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한편 제2圖는, 인간은 각기 다르게 존재하지만 창조 자체는 공히 세계창조의 원리에 평등하게 근거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인간존재의 평등성과 개별성이 실현되고 仁의 이론적 근거가 얻어진다.

제1圖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러한 탐구의 정확한 근거 혹은 대전제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3圖와 4圖에서 퇴계는 이 문제를 밝혔다. 제2圖는 개념적 부모로서의 乾坤 — 그로부터 형제로서의 만인평등이 실현된다 — 에 의해 인간존재 생성의 연원이 보여졌다. 다른 한편 乾坤과 천지 사이에는 유추가 성립하기 때문에 高下, 貧富, 貴賤, 前後의 서열이 실현되고, 老少, 君臣, 父子의 구별이 생겨난다. 그러나 제2圖는 오직 인간세계 전반의 평등성과 개체의 차이성만을 밝혔을 따름이다.

『小學』에 관한 제3圖의 내용은 교육의 대책과 성격을 확정하고 父子, 主從, 夫婦, 老少, 親友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 다시 말해 제3圖는 구체적인 일상의 덕스러운 생활속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연구 체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父母와 자식, 형제, 친우의 관계를 밝혔다. 心身은 灑掃應對와 진퇴의 사이와 禮, 樂, 射, 御, 書, 數를 익

힘을 통하여 수련된다. 퇴계가 보기에는 이 다양한 구체적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본적 행동양식은 세계 혹은 존재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인간본성의 顯現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心身을 이 기본적 행동양식들을 수련함으로써 형성하고, 藝와 技를 완전히 익힘으로써 大學에로 나아간다. 제4도는 『小學』을 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학문의 목적과 내용을 지시해 준다. 제1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학문의 목적과 내용은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正心, 誠意, 格物, 致知할 것이 요청된다. 『小學』과 『大學』을 통하여 학문의 목표와 방법을 살펴볼 것 같으면 『小學』은 일상생활속에서 기본적 행동양식을 수련함과 藝와 技를 완전히 익힘을 통하여 心身을 교육하려 하는 반면 『大學』은 유학의 본래 목표인 修己治人の 학문과 실천의 요점을 말하고 있다. 『大學』에서 修己가 뜻하는 바는 正心, 誠意, 格物, 致知이다.

반면 퇴계는 제4圖(大學圖)에서 敬에 관한 朱子の 말을 인용하여, 敬은 心의 主宰이고 만사의 근본이므로 모든 수양의 중심은 居敬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小學』은 居敬의 시초가 되어야 하며, 『大學』은 그 완성이 되어야 한다. 그는 敬이 聖學의 始終을 일관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聖學圖說』이 敬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의 핵심과 기초로서의 敬에 대한 퇴계의 철학은 여기에서 보다 명백히 규정된다. 그러면 그는 왜 제5圖에 朱子の 『白鹿洞規』를 내놓았는가? 朱子の 이론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보건대 옛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하는 뜻은 다 의리를 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연후에 미루어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려 함이요 한갓 博覽強記에 힘써 詞章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祿利나 취하려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학문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되었다. 그렇지만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치던 법은 경전에 다 갖추어져 있다. 뜻있는 선비는 마땅히 熟讀, 深思하여 問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통유학의 내용과 방법론은 이미 잘 규정되어 있었고, 전통유학의 요점은 오류를 명백히 확립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학문과 실천은 이 오류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것의 확립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퇴계는 帝王學의 準則과 금지의 조목은 비록 일반 학문과 그 근본에 있어서는 같지만, 전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聖學의 목표는 지식을 늘리고 글을 잘 짓게 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五倫과 五常을 밝히고 확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再次 강조한다. 그래서 퇴계는 위 다섯 개의 圖는 天道에 근본하여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데 공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 V. 心과 性

제1圖에서 제5圖까지는 학문의 목표와 내용은 『小學』과 『大學』을 연구함으로써 밝혀져야 한다는 것과, 그것들은 세계 혹은 존재의 근본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근본원리는 인간존재의 원리와 유추가 성립되므로 세계 속에서의 질서와 인륜이 그로부터 연역되어 나오고 聖學으로서의 실천과 학문이 해명되었다. 제6圖에서 10圖까지는 주로 학문과 실천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心과 情을 논하였으며 동시에 敬을 실천하는 때와 장소를 보여준다.

제6圖는 鄭林隱의 圖를 修正하여 내놓은 것으로, 퇴계 자신의 理, 氣, 性, 情에 관한 근본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제1圖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모든 존재는 無極 혹은 太極으로서의 생성변화의 원리를 소유한다. 한 인간이 하나의 존재로서 氣와 함께 태어날 때, 그는 자연히 이 원리를 내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本然之性이며 純粹至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性이 그대로 發하여 情이 될 때에도 이 情은 아무런 惡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四端之情이라고 불린다. 그는 또한 本然之性이 그대로 發한다면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의 七情도 善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個物로서의 인간은 존재의 근본원리로서의 理와 心身의 구성요소로서의 氣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본연지성을 理와 氣의 결합으로 생각할 때 이 본연지성은 소위 氣質之性이다. 理와 氣를 포함한 이 氣質之性은 發하여 情이 됨에 있어 相須하기도 하고 相害하기도 한다. 四端之情은 理가 發할 때 氣가 따르는 것이므로 純善이다. 만약 理가 충분히 發하기 전에 氣가 理를 가리워 버리면 이 情은 不善이 되어 버린다. 七情의 情도 氣가 發하여 理가 타니 역시 不善함이 없지만 氣가 發한 것이 中節하지 못하여 理를 滅하면 惡이 되는 것이다. 性을 논함에 있어 氣를 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理와 氣를 포함한 氣質之性을 다룰 때는 本然之性이 순수히 發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퇴계는 氣質之性을 논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本然之性이 순수하게 발한다는 것을 이상적으로 끌어 내었던 것이다.

心은 理와 氣를 겸하고 性情을 統攝한다. 퇴계는 本然之性이 發하여 情이 될 그 즈음은 바로 一心의 기미요 萬化의 樞要로서 선악이 여기로부터 갈라진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게는 居敬이 가장 중요하다. 心이 未發인 상태에서는 存養의 功을 깊이해야 하며, 已發인 상태에서는 發의 결과를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퇴계는 心을 敬에 의해 삼가고 조이며 규제함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었다.

제6圖는 性情을 統攝하고 身을 통제하는 心이 敬에 의해 수양되어야 함을 설명한 반면, 제7圖는 천지의 心과 인간의 心 사이의 상호관계를 仁에 관한 朱子の 이론을 사용하여 해명하고 있다. 朱子는 천지가 만물을 生하는 기능이 仁이며 인간의 心은 그것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人心의 본래 기능은 천지에 의해 만물이 개시되고 생육되는 바의 기능과 같은 仁이다. 心이 발하기 전에는 四德(仁義禮智)이 갖추어 있지만 仁만은 네가지를 다 포괄한다. 仁의 이러한 기능은 生之性이나 愛之理라고 불리고, 그러므로 仁之體라고 하는 것이다. 心이 발한 후에는 四端이 나타난다. 惻隱은 四端을 貫通하는 心의 기능이며, 愛之發이고 仁之用이다.

朱子の 이론의 중요한 점은 仁이 體와 用으로, 따라서 愛之理와 愛之

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仁은, 理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 또는 一般者인 것과 똑같이, 모든 德과 善과 行의 근본이다. 제7圖의 또 한가지 중요한 면은, 仁을 천지가 만물을 生하는 기능으로 생각함으로써 人性的 본래적 기능과의 유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7圖는 天人이 상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心은 언제나 순수하게 선한 방향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어두워지기 쉽다. 인간이 氣를 받아 만들어질때 인심은 언제나 내재해 있다. 인심이 욕망에 의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연지성의 기초 위에서 기능한다면 그것은 道心으로 전환된다. 人心과 道心은 애초부터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天理를 마음속에 보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8圖가 밝히고 있는 바이다. 敬을 떠나서는 욕망을 억제하고 心을 靜하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왜냐하면 心은 身을 통제하고 敬은 心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유학자가 그 마음을 흐트림 없이 한 곳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그 마음을 엄격히 조이며, 그 마음을 밝고 빈틈없는 상태에 둘 것 같으면, 聖學에 입문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8圖에서 퇴계가 말하고자 한 것은 聖學에 있어 修己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과 誠意, 格物, 致知함으로써 正心하는구체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제9圖와 10圖는 修己의 방법론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朱子에 따르면 第九圖는 敬이 실천되는 여러 경우(地頭)를 배열한 것이다. 퇴계는, 地頭는 공부의 좋은 근거이며, 우리가 이를 일상 생활 속에서 보고 생각하는 사이에 체험하고 玩味하고 깨닫고 살펴 얻음이 있으면 敬이 聖學의 始와 終이 된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제10圖 역시 이른 아침부터 밤에 이르기까지의 敬의 실천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퇴계에 따르면 道理는 일상 생활의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敬을 실천하지 않아도 좋은 때와 장소란 없다. 한마디로 제9圖와 10圖는 언제 어디서나 만사가 순조로이 이루어지도록 본연지성을 存養하고 언행을 성찰하는 방법을 보여주

고 있다. 退溪는 성인이 되는 요령은 敬을 엄격히 실천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6圖에서 제10圖까지를 요약하여 퇴계는 이 다섯 개의 圖는 心性에 근원한 것으로서 일상 생활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다섯 개의 圖에 일관되게 깔려 있는 생각은, 인간의 본심과 본성의 기능을 드러내고 마땅한 바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敬을 지켜 가지는 것이라는 것과, 敬의 도움에 의해서만 聖學의 始終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 VI. 結 論

『聖學十圖』는 퇴계철학에 내재한 체계를 구성적으로 顯示한 것이다. 그는 일개 신하로서 제왕의 학과 구체적 실천을 자신의 말로 시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가 68년 동안 쌓고 세워온 聖學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그의 철학체계를, 열 개의 圖와 序文 속에서, 과거의 성현들과 다른 학자들의 말을 빌어 설명했던 것이다. 특히 각 圖의 말미에 붙은 보충설명은 열 개의 圖의 체계적 구성을 이론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는 먼저 학문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론을 밝히고, 그것들을 세계관 혹은 존재론의 기초, 위에 세운 다음, 세계속에서의 인류의 질서를 밝혔다. 그는 이것을 일관성, 있는 논리로 설명하고, 이것이 명확히 되었을 때 당연한 차례로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신의 문제를 제기한다. 心의 기능과, 性情과, 본래적 기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들에의 대답은 心의 당위적 상태를 규정함으로서 제시된다. 敬은 心의 본래적 기능을 조장하고 存養하는 기초가 된다. 나아가서 心은 聖學의 始終의 근거로서 강조된다. 敬은 10圖의 기본이며, 10圖는 敬을 핵심으로 하여 그려진 것이다.

왜 퇴계는 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인가? 그가 신유학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天命圖說』에서 보여지는 바 天命의 개념을 잘 이

해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본연지성이 천명을 통하여 기능함을 알지 못할 때, 인간 행위의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心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며, 그 때문에 心의 상태는 근본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선한 행동과 학문은 心으로부터 생겨 나온다. 心은 身을 통제하며, 心을 통제하는 것은 敬이다. 사람의 心은 자신과 자신의 성격을 완성하려는 욕구일 뿐이다. 만약 天命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心을 자신의 心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근본적 이유로 퇴계는 敬을 그의 철학의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

(이 재 희 譯)